

공 개



의안번호	제 121 호
의 결 연 월 일	2021. 3. 31. (제 6 차)

의
결
사
항

금융감독원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1. 3. 31.

1. 의결주문

☐ 2020 회계연도 금융감독원 결산 승인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45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 2020 회계연도 결산안을 예·결산심의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승인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회계기간 : 2020. 1. 1. ~ 2020. 12. 31.(제22기)

나. 수지현황

☐ 2020년 총수입은 3,998억원, 총지출은 3,374억원으로 당기 수지차익(분담금 반환 전 기준)은 624억원 발생

○ 당기 수지차익(624억원)은 감독분담금 및 발행분담금 수납비율에 따라 납부기관별로 반환 예정

○ 반환 예정금액은 감독분담금 납부기관 452억원(72.5%), 발행분담금 납부기관은 172억원(27.5%)

다. 재무현황

☐ 2020년말 기준 자산은 3,025억원으로 전년 말(2,821억원) 대비 204억원 증가(+7.2%)

○ 수지차익 증가(+128억) 및 추가감독분담금 수입액 증가*(+80억) 등에 기인

* '19회계연도 : 12.9억원 → '20회계연도 : 92.9억원

□ 2020년말 기준 부채는 546억원으로 전년 말(470억원) 대비 76억원 증가(+16.3%)

○ 추가감독분담금 수입액 증가에 따른 선수수익* 증가(+80억)에 주로 기인

* 추가감독분담금은 '20회계연도에 징수하지만 '21회계연도 감독분담금 수입으로 반영되므로 '20회계연도 재무상태표에서는 선수수익(부채)으로 처리

□ 2020년말 기준 자본은 2,479억원으로 전년 말(2,351억원) 대비 128억원 증가(+5.4%)

○ 전액 수지차익 증가(624억원, 전년 대비 +128억원)에 기인하며, 수지차익 반환 예정액을 반영한 자본은 1,855억원으로 전년 말과 동일

라. 예산액 대비 수입 및 집행 현황

□ 총수입(3,998억원) : 예산액(3,630억원) 대비 +10.2% 초과 수입(+368억원)

○ 공모회사채 발행 증가(2019년 170.2조원 → 2020년 183.6조원, +7.9%)에 따른 발행분담금 수입 초과(예산 대비 +353억원)에 주로 기인

□ 총지출(3,374억원) : 예산액(3,630억원) 대비 93.0% 집행(△256억원)

○ 정·현원차 등에 따른 인건비 불용(△85억), 경영평가등급(B)에 따른 평가상여금 지급차액(△36억*), 코로나 확산에 따른 여비불용(△31억) 등에 기인

* 예산편성시에는 평가등급 확정 전이므로 A등급까지 지급 가능한 금액 편성(162억) → 실제 평가등급(B)에 따른 지급액은 약 126억

4. 참고사항

가. 2020 회계연도 금융감독원 결산서(안) 주요내용 : < 붙임 1 >

나. 2020 회계연도 금융감독원 결산심의 결과 : < 붙임 2 >

다. 금융감독원 결산 관련 법규 : < 붙임 3 >

라. 2020 회계연도 금융감독원 결산서(안) : < 별첨 >

(별지)

2020 회계연도 금융감독원 결산서(안) 승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45조제3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별첨 「2020 회계연도 금융감독원 결산서(안)」를 승인한다. 다만, 예·결산심의 소위원회 심의 시 제기된 지적사항(붙임 2)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2022년도 예산심의 시 금융위원회에 그 이행사항을 보고하도록 한다.

1. 결산 개요

□ (회계기간) 2020. 1. 1. ~ 2020. 12. 31.(제22기)

□ (수지현황) 총수입은 3,998억원, 총지출은 3,374억원, 당기 수지차익은 624억원(분담금 반환 반영 전 기준)

- 수지차익이 624억원 발생한 것은 당초 예상 대비 발행분담금 납부액이 증가*하면서 총수입이 368억원 증가한 것에 기인

* '20년도 발행분담금 추정액 705억원, 발행분담금 징수액 1,058억원

- 수지차익은 분담금 납부비율에 따라 기관별로 반환될 예정 (감독분담금 452억원, 발행분담금 172억원)

* 근거 : 금융위원회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8조

□ (재무상태) '20년말 기준 총자산은 3,025억원, 부채와 자본은 각각 546억원 및 2,479억원

< 2020 회계연도 재무제표 현황(요약) >

(단위 : 억원)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I. 총 수 입	3,998	II. 총 지 출	3,374
운영수입	3,951	일반관리비	3,238
운영외수입	47	운영외비용 등	136
		III. 수지차익	624
합 계	3,998	합 계	3,998
IV. 자 산	3,025	V. 부 채	546
유동자산	1,575	유동부채	209
비유동자산	1,450	비유동부채	337
		VI. 자 본	2,479
		기본재산	1,855
		수지차익	624
합 계	3,025	합 계	3,025

2. 수지 현황

□ (수입) '20년 중 총 수입은 3,998억원으로 전년(3,906억원) 대비 92억원 증가(+2.4%)

- 회사채 발행증가 등으로 발행분담금 수입이 97억원 증가하고 감독분담금 부과액이 전년 대비 17억원 증가한 데 주로 기인*

* 저금리 지속으로 인해 수입이자는 전년 대비 16억원 감소

□ (지출) '20년 중 총지출은 3,374억원으로 전년(3,410억원) 대비 36억원 감소(△1.0%)

- 인건비 상승(총인건비 인상률 +1.8%)으로 총인건비(+48억원) 및 퇴직급여 집행액(+44억)이 증가하였으나,
- 통상임금충당부채 설정액이 감소('19년 127억원→'20년 미설정)하고 코로나 지속 영향으로 경비 집행액이 감소(△15억원)

□ (수지차익) '20년 중 수지차익은 624억원으로 전년(496억원) 대비 128억원 증가(+25.7%)

* 수지차익 추이(억원) : '17년 466 → '18년 512 → '19년 496 → '20년 624

< 부문별 수입·지출현황 >

(단위: 억원, %)

구 분	2020년 (A)	2019년 (B)	증 감(A-B)		비고(전년대비 증감 사유)
			금 액	증감률	
I. 총 수입	3,998	3,906	92	2.4	
운 영 수 입	3,951	3,838	113	2.9	
감독분담금	2,788	2,771	17	0.6	감독분담금 예산 증가
발행분담금	1,058	961	97	10.1	회사채 등 발행 증가
한은출연금	100	100	-	-	
기타수입수수료	5	6	△1	△10.6	
운영외수입	47	68	△21	△30.5	수입이자 △16억, 자산매각 처분이익 △8억 등
II. 총 지 출	3,374	3,410	△36	△1.0	
일반관리비	3,238	3,161	77	2.4	
인 건 비	2,235	2,187	48	2.2	총인건비 증가율(1.8%), 정원증원(+20명)
퇴직급여	256	213	44	20.7	퇴직급여 준거임금 확대(평가상여금 포함)
경 비	747	762	△15	△1.9	여비 △26억, 전산비용 +12억 등
운영외비용 등	136	249	△113	△45.1	통상임금충당부채 설정액 △127억, 회계 기준원 지원금 △4억, 자본지출 +29억 등
III. 수지차익	624	496	128	25.7	

3. 재무상황

□ (자산) '20년말 자산 총계는 3,025억원으로 전년 말(2,821억원) 대비 204억원 증가(+7.2%)

○ 수지차익 증가(+128억) 및 추가감독분담금 수입 증가*(+80억)에 기인

* '19회계연도 : 12.9억원 → '20회계연도 : 92.9억원

□ (부채) '20년말 기준 부채 총계는 546억원으로 전년말(470억원) 대비 76억원 증가(+16.3%)

○ 추가감독분담금 수입 증가에 따른 선수수익 증가(+80억)에 기인

* 추가감독분담금은 '20회계연도에 징수하지만 '21회계연도 감독분담금 수입으로 반영되므로 '20회계연도 재무상태표에서는 선수수익(부채)으로 처리

□ (자본) '20년말 자본총계는 2,479억원으로 전년말(2,351억원)보다 128억원 증가(+5.4%)

< 부문별 재무상황 >

(단위: 억원, %)

구 분	2020년 (A)	2019년 (B)	증 감(A-B)		비 고
			금 액	증감률	
I. 자산총계	3,025	2,821	204	7.2	
유 동 자 산	1,575	1,277	298	23.3	
예 금	1,570	1,271	299	23.5	수지차익 증가 등에 따른 예금 증가
미 수 금	2	2	-	△8.4	
기 타	3	4	△1	△27.4	
비유동자산	1,450	1,543	△93	△6.0	
투자자산	253	328	△75	△23.0	임차보증금(△42억), 퇴직연금운용 자산(△38억) 등
유형자산	1,120	1,147	△27	△2.3	
무형자산	77	68	9	13.2	
II. 부채총계	546	470	76	16.3	
유 동 부 채	209	143	66	47.1	
미지급금	4	3	1	27.1	추가감독분담금 증가에 따른 선수 수익 증가(+80억) 등
예 수 금	92	90	2	1.4	
기 타	113	49	64	130.6	
비유동부채	337	327	10	3.0	
퇴직급여충당부채	-	-	-	-	퇴직연금운용자산 예치금액 증가 자본예산 집행액 증가
비유동자산준비금	207	198	9	4.8	
통상임금충당부채	127	127	-	-	
소송충당부채	2	2	-	2.7	
기 타	-	-	-	-	
III. 자본총계	2,479	2,351	128	5.4	
기 본 재 산	1,855	1,855	-	-	통합 시 인수재산 및 한국은행 출연금
수 지 차 익	624	496	128	21.9	발행 · 감독분담금 납부기관 환급예정

4. 예산액 대비 수입 및 집행현황

□ (수입) '20년 중 총수입액은 3,998억원으로 예산액(3,630억원) 대비 368억원 증가(+10.2%)

○ 공모회사채 발행 증가*에 따른 발행분담금 수입 증가(예산 대비 +353억원, 전년 대비 +97억원)에 주로 기인**

* 공모 회사채 발행액(조원) : '17년 144.0 → '18년 160.9 → '19년 170.9 → '20년 183.6

** 운영외수입도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8.3억) 등으로 예산대비 +15억 초과

< 예산수입 현황 >

(단위: 억원, %)

구 분	2020년 예산		2020년 수입		차 이 (B-A)	수입률	
	(A)	구성비	(B)	구성비		(B/A)	2019년
감독분담금	2,788	76.8	2,788	69.6	-	100.0	100.0
발행분담금	705	19.4	1,058	26.6	353	150.2	148.5
한은출연금	100	2.8	100	2.5	-	100.0	100.0
운영외수입 등	37	1.0	52	1.3	15	141.8	197.5
합 계	3,630	100.0	3,998	100.0	368	110.2	109.8

□ (집행) '20년 중 집행액은 3,374억원으로 예산액(3,630억원) 대비 93.0%의 집행률을 시현(전년 대비 △2.9%p)

○ 정·현원차 등에 따른 인건비 불용(△85억), 경영평가등급(B)에 따른 평가상여금 지급차액(△36억), 코로나 확산에 따른 여비불용(△31억) 등에 기인

< 예산집행 현황 >

(단위: 억원, %)

구 분	2020년 예산 ¹⁾		2020년 집행		차 이 (B-A)	집행률	
	(A)	구성비	(B)	구성비		(B/A)	2019년
일반관리비	3,394	93.5	3,238	96.0	△156	95.3	96.4
총인건비	2,320	63.9	2,235	66.3	△85	96.3	97.0
경 비	800	22.1	747	22.1	△53	93.4	99.2
퇴직급여	274	7.5	256	7.6	△18	93.2	83.1
자 본 예 산	91	2.5	82	2.4	△9	89.8	94.1
운영외비용 등 ²⁾	145	4.0	55	1.6	△91	38.0	88.5
합 계	3,630	100.0	3,374	100.0	△256	93.0	95.9

1) 임직원 평가상여금(인건비 126억원), 인력증원(인건비 10억원), 코로나19 대응 지출(경비 5억, 자본예산 2억), 자회사 출자금(자본예산 3억원)에 사용한 예비비 146억원 포함

2) 예비비 미사용액 88억원(목적예비비 86억원, 일반예비비 2억원) 포함

5. 기타 사항

□ 예산 초과계리: 28.0억원

- 세금과공과(+25.7억원), 운영외비용(+2.2억원), 보험료(+0.1억원) 등의 비목에서 예산보다 28.0억원 초과 집행

* 금융감독원장은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세금과공과, 운영외비용, 법인세비용 등의 비목에 대하여는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可(예산총칙§8)

< 초과계리 관련 비목 예산 >

(단위: 억원)

과 목	'20년 예산 (A)	'20년 집행 (B)	차 이 (B-A)	비 고
세금과공과	216.1	241.9	25.7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집행액 증가
보험료	2.3	2.4	0.1	보이스피싱 관련 보험료 증가 등
운영외비용	13.4	15.6	2.2	
공인회계사 시험관리비	13.4	14.3	0.9	코로나19 방역강화에 따른 시험장 관리비용 증가
소송충당부채 전입액	-	0.6	0.6	팀장직무급 관련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충당부채 설정
기타운영외비용	-	0.7	0.7	해외사무소 전도금 관련 환차손 등
합 계	231.8	259.8	28.0	

□ 예비비 : 234억원 중 146억원 사용

- 평가상여금(126억원), 증원 관련 인건비(10억원),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출(7억원) 및 자회사 설립출자금(3억원) 등에 사용

< 예비비 사용 내역 >

(단위: 억원, %)

구 분	사용 전 예산액(A)	사용액(B)	사용 후 예산액(A-B)
예비비	234	146	88
목적예비비	222	136	86
일반예비비	12	10	2

< 예비비 배정 관련 비목 예산 >

(단위: 억원)

구 분	배정 전 예산액(A)	배정액(B)	배정 후 예산액(A+B)
총인건비	2,183	136	2,319
경비	124	5	129
시험관리비	11	3	14
일반용역비	94	1	95
소모품	6.2	0.5	6.7
통신비	12.6	0.4	13.0
자본예산	39	5	44
공구기구집기	39	2	41
기타(자회사주식)	-	3	3
합계	2,346	146	2,492

1. 심의 경과

- 금융감독원 2020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21.3월 중 「금융감독원 예·결산심의 소위원회」 개최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8,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14 등에 따라 설치·운영 중

2. 주요 점검사항에 대한 논의 결과

① 복리성 경비의 편성 및 집행 절차 개선

- 전용을 통해 필수경비가 아닌 복리성 경비*를 증가시키는 것은 전용의 취지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는 바 개선 필요

* '20회계연도중 대내포상비 예산을 승인액보다 증액전용(0.66억→0.94억)

◆ (부대의견) '22년 예산부터는 대내포상비 등 복리성 경비의 증액소요는 회계연도중 비목전용 대신 예산서에 반영하여 예산심의를 받을 것

② 금융회사 검사

- 최근 금감원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 등과 관련하여 피점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소송제기가 늘고 있는 바, 검사결과와 정합성을 더욱 개선하여 피점금융회사의 수용성을 높일 필요

◆ (부대의견) 금융회사 검사와 관련한 소송증가 가능성에 대응하여 검사집행, 검사결과 처리 등 검사결과와 도출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칠 것

3 금융교육

- 금감원은 코로나로 인한 대면교육 축소 환경에 대응하여 동영상 등 비대면 교육콘텐츠 개발을 확대하고 있으나, 배포처가 주로 특정기관 및 금감원 홈페이지에 한정되어 접근성에 한계
- 비대면 금융거래 확대, 신종 금융사기 증가 등으로 다문화가정, 취약계층 등의 금융이용 애로가 높아질 수 있는 만큼 맞춤형 금융교육을 더욱 강화 필요

◆ (부대의견) 금감원 금융교육 자료에 대한 전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SNS 등 오픈소스를 활용한 교육자료 배포를 더욱 활성화하고,

- 다국어 교육영상 보급, 보이스피싱 방지교육 확대 등 맞춤형 교육의 내실성을 더욱 제고할 것

4 국제회의 · 협력

- '21년에도 코로나로 인한 국제회의 및 국제교류 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바, 컨퍼런스콜 등 비대면 교류를 보다 확대하여 국제협력 수요에 대응할 필요

◆ (부대의견) 코로나 영향 지속으로 국제회의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대면 교류협력 수단을 적극 개발 · 활용할 것

5 해외사무소

- 금감원은 '19년중 홍콩사무소를 폐쇄했으나, 감사원은 워싱턴 등 국내금융회사 해외점포가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사무소 추가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 제기

◆ (부대의견) 현재 존치중인 7개 해외사무소 중 기능분석 결과 존치 필요성이 낮은 해외사무소는 조속히 정리하고,

- 잔여 해외사무소는 지역별 특성 등을 감안한 기능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⑥ 정보화 사업

- 금감원의 전산사업 중 ‘모바일 통합연금포털’, ‘전자우편통지 서비스’ 등은 주된 이용자가 일반 금융소비자이므로 소비자 대상 효과분석을 거쳐야 사업성과를 정확히 판단 가능
- 금감원의 21개 개별 홈페이지*별로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에 유용한 각종 정보가 산재해 있어 금융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적재적소에 발견하기 어려운 측면

* 금융소비자 관련 정보 : FINE, 서민금융 관련정보 : 1332
금융회사 업무보고서 : FISIS, 연금관련 정보 : 연금정보통합포털

- ◆ (부대의견)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산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종료 후 효과분석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로부터의 피드백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 일반 국민이 금감원 보유 업무공시 자료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향후 홈페이지 개편시 자료접근 편의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붙임 3 | 금융감독원 결산 관련 법령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금융감독원에 대한 지시·감독)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업무·운영·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 승인

제45조(예산과 결산) ③ 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결산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분담금) ④ 금융감독원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분담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분담금의 합계액이 제3항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한 기관에 납부금액비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으며, 이월한 금액은 다음 연도의 분담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분담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분담금의 합계액 중 제3항의 한도를 초과한 금액	×	<div style="text-align: center;">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분담금 </div> <hr style="width: 80%; margin: 10px auto;"/> <div style="text-align: center;">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분담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분담금의합계 </div>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분담금의 분담요율·한도 등) ② 법 제442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한도 및 한도를 초과하여 징수한 분담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혁신기획재정담당관
연 락 처	02-2100-2782